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헬로우 넥센

HELLO NEXEN MAGAZINE

Fall 2019 Vol.77



www.nexentire.com



#WE

CONTENTS

We



6	<u>We are</u> 유럽 공장 준공식 개최
12	<u>Zoom In NEXEN 1</u> 2019 GLC, 'Beyond Challenge'
16	<u>Zoom In NEXEN 2</u> 2019 넥센타이어 Global Staff 초청 행사
20	<u>Zoom In NEXEN 3</u> 'N젤 어린이집' 마곡캠퍼스 개원
22	<u>With NEXEN 1</u>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6	<u>With NEXEN 2</u> 넥센타이어가 함께한 창녕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30	<u>People & People</u> 칭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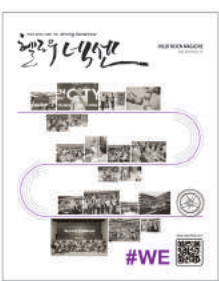
Lifestyle



34	<u>NEXEN Value</u> 즐거운 우리 팀을 만드는 방법
38	<u>Moving Talk</u> 가장 이상적인 '우리 팀'의 모습은?
40	<u>NEXEN Club</u> 우리만의 회식 문화
44	<u>Movement Life</u> 팝핀현준 & 박애리 부부
48	<u>I Can Save</u> 환경 살리기 캠페인
52	<u>Wc튜브</u> 지난여름 추억을 함께하는 우리
58	<u>NEXEN Think-big</u> 나만의 한 단어
60	<u>Travel Tomorrow</u> 화천의 가을
66	<u>Culture Road</u>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Report

72	<u>Best Partner</u> 타이어테크 죽전점
76	<u>NEXEN News</u>
82	<u>참여 안내</u>



2019 Vol.77

표지 이야기
함께 달린 시간 속에서
성장한 우리가 글로벌한
넥센을 만듭니다.
미래를 선두하는 넥센은
세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계에서 활약하는 'WE'.
넥센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9년 가을호 통권 77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천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문선미, 홍소녀, 김지애 사진 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아트프린팅(주)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내일은 우리가 함께 일궈낸
작은 것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 공장 준공식 개최

넥센타이어, 유럽 시대 본격 개막

8월 28일 넥센타이어는 체코에 위치한 유럽 신공장 준공식을 갖고,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의 뜻을 올렸다.
유럽 공장 준공식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해보자.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NEXEN NEXEN TIRE





넥센타이어가 유럽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고 나섰다. '새로운 도전,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테마로 진행된 유럽 공장 준공식은 체코의 페트르 오츠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올드리히 부베니체크 우스티 주지사를 비롯한 체코 정부 관계자,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강호찬 부회장 및 임직원, 그리고 주요 관계사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코 우스티 주(州) 자테츠 시(市) 65만㎡(약 20만 평) 부지에 건립된 유럽 공장은, 한국 창녕공장 건설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공된 세계 최고의 최첨단 친환경 공장이다.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 확대와 현재 공급 중인 포르쉐, 폭스바겐, 르노, 피아트, 스코다 등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로의 안정적인 신차용 타이어 공급 및 확대를 위해 건설되었다. 공장이 위치한 체코는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반경 400km 이내에 30여 개의 카 메이커가 위치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원재료 관리부터 생산, 품질, 물류까지 전 공정 자동화를 기반으로 공장 내 모든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생산 초기부터 각종 저해 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예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완벽한 품질을 자랑하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해냈다.

올해 연간 300만 개 생산 Capa'를 시작으로 단계적 증설을 통해 2022년에는 1,1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 글로벌 타이어 생산 Capa' 연 5,000만 개 시대를 열게 된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은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유럽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동시에,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본고장인 유럽에 생산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프리미엄 OE 공급과 후속 RE 시장의 판매 확대를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㉔



NEXEN TIRE EUROPE PLANT



2019 GLC, 'Beyond Challenge' The Beginning of the NEXT LEVEL

글 전략실행TFT 이호재 팀장
사진 신사업개발 TFT 황익진 팀장,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이맹호

2019년 7월 15일, 3년 만에 두 번째 GLC(Global Leadership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2016년에 개최되었던 제1회 GLC와 마찬가지로 넥센타이어 임원, 해외 지법인장, Global Staff 등 170여 명의 인원이 한자리에 집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YBM 연수원이 아니라 THE NEXEN univerCITY의 대강당이었다.

2019년은 'Global NEXEN'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2성장의 원년이다. 제1회 GLC를 개최했던 3년 전과 비교하면 넥센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염원하던 유럽 공장이 드디어 양산을 시작했고, NETC, NATC가 완공되어 NCTC와 함께 글로벌 R&D 네트워크가 완성되었다. THE NEXEN univerCITY를 방점으로 2025년 글로벌 Top10,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Global NEXEN' 발판이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4일간 개최된 제2회 GLC는 이러한 THE NEXEN univerCITY의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적극 활용했다. 단순히 토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교육, 잠시 휴식하는 시간마저도 동선과 의식의 흐름을 고려하여 준비했다. 특히 풀타임 참석자 167명 전원 개별 시간표를 작성하여 목적에 맞도록 각각의 시간과 장소를 고민해 배정했다.

콘텐츠 역시 한걸음 나아갔다. 지난 GLC가 우리의 문제를 모두 쏟아냈다면, 2019년 GLC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제 제기와 공유, 브레인스토밍 위주의 진행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공유 세션에서 토의 결과에 대해 즉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콘퍼런스에 무게감을 더했다.




이번 GLC에서는 16개의 메인 어젠다와 22개의 서브 어젠다가 논의되었는데, 메인 어젠다의 경우 대부분의 전략 방향성이 콘퍼런스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그동안 모호하게 논의되었던 목표에 대해 수치화·정량화하여 전사 중장기 예측치가 작성되었다. 중장기적으로 전사가 공유하는 기준점이 마련된 것은 이번 GLC의 큰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참석자 대부분은 GLC 준비와 진행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현했으나 이번 GLC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다. Pre GLC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GLC의 어젠다로 확정되기까지 여러 번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메인 어젠다가 '시장'과 '영업'에 편중되어 '연구'와 '생산', '관리'는 상대적으로 GLC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Pre GLC부터 전체적으로 촉박하게 진행되어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에, 그에 따른 미진한 사항들은 여전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뿌듯함과, 더 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 채 4일의 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지막 날 오후 토의가 모두 끝나고 결과 공유를 마친 후 자칫 분위기가 느슨해질 것 같았던 때, 이진만 전략기획BS장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요식업 사업가이자 전 메이저리거 김병현 선수, LG화학 이석기 인사담당임원, 뮤지컬 연출가 박갈린 감독, 그리고 NEXEN TIRE 프리미엄 OE Michael Haupt BS장. 이상 4명의 패널 토론은 Pre GLC부터 4일 동안 계속된 GLC로 지쳐 있던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오상진 아나운서와 SCM팀 김영빈 사원의 사회로 중정에서 소통과 단합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맥주는 더할 나위 없었고, 중정의 분위기 또한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유난히 더운 날씨였지만 분위기에 취한 넥센인들의 흥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보다. 초대가수 KCM과 코요태의 노래를 정점으로 흥겨움의 여운이 깔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3년 만에 개최된 GLC는 모두의 흥겨움과 함께 그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3년. 지난 3년간 우리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럽 공장이 양산을 시작했고,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완성했으며, 우리는 서울 마곡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2019 GLC의 슬로건은 'Beyond Challenge - The beginning of the NEXT LEVEL'. 다시 3년이 지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과연 우리는 단순히 '도전'하는 것을 넘어,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하나.
우리에겐
이제 실행만 남았다.

* Thanks to,
전략실행TFT, 전략기획팀, 성과혁신팀,
그리고 마곡기업문화팀

2019 넥센타이어 Global Staff 초청 행사

글/사진 인사팀 박성준 대리




7월 15일 개최된 Global Leadership Conference(이하 GLC) 와 더불어 청도, 유럽 공장에서 근무하는 Global Staff 16명을 THE NEXEN univerCITY로 초청했다. 새로 건립된 신사옥 방문을 통해 넥센타이어 직원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강호찬 부회장 외 본사 임직원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6박 7일간 진행됐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전자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는 GLC 참석이었다. 글로벌 컴퍼니로의 도약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Global Staff와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체코어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글로벌 임직원들과의 친숙한 소통을 위한 '넥센인의 밤' 행사에서는 강호찬 부회장의 따뜻한 환영사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 현지 맥주가 포함된 정찬을 제공하여 Global Staff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다음 날 창녕공장으로 이동한 Global Staff들은 공장 소개 영상을 감상하고 공장 현장을 둘러보았다. 창녕공장의 가지런히 잘 정돈된 자동화 첨단 설비에 놀란 Global Staff들은 연신 감탄을 내뿔었으며, 특히 유럽 공장에서 온 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창녕공장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Global Staff들은 감사를 표했다.



Global Staff들은 서울로 이동하여 남은 일정을 이어갔다. THE NEXEN univerCITY 투어를 비롯해 인사동,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불꽃 크루즈 등을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넥센인’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소중한 인연을 이어간 시간, 이번 초청 행사를 통해 ‘넥센인’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와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직장 어린이집

‘N젤 어린이집’ 마곡캠퍼스 개원

양산공장과 창녕공장에 이어 세 번째 직장 어린이집 개원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사진 이명호



넥센타이어가 임직원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인 ‘N젤 어린이집’ 마곡캠퍼스를 개원했다.

넥센타이어는 양산공장과 창녕공장의 사원아파트에 위치한 ‘N젤 어린이집’에 이어 세 번째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9월 2일 열린 개원식에는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 라임교육연구소 이현옥 대표, 넥센타이어 임직원 학부모 및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강호찬 부회장은 본인도 세 아이의 아버지라 학부모의 고충과 걱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라임교육연구소 이현옥 대표도 축사에서, 어린이집 개원에 많은 도움과 노력의 손길이 있었다며 “최선을 다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학부모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개원한 ‘N젤 어린이집’은 지난 4월 오픈한 넥센타이어의 마곡 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 건물 1층에 자리한다.

‘더 넥센 유니버시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 옥상 녹화에 의한 열 손실 저감 등이 설계 된 친환경 빌딩으로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건축물이다.



‘N젤 어린이집’ 마곡캠퍼스는 208㎡ 규모에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교육실, 놀이방 등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시설을 마련했다.

넥센타이어는 전문 위탁 운영기관인 라임교육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㉞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글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사진 (CP)생산관리팀 김종호 과장, (CP)기업문화팀 김형근 대리, (YP)TPM파트 김광민 대리





기업의 건강한 품질 경쟁,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넥센타이어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남 거제시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열린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011년 이래 9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되는 원가 절감, 품질·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등에 대한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197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회를 통해 품질경영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와 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분임조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개선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해왔다.

넥센타이어는 2010년 경남 품질분임조 출전을 시작으로, 2011년 (YP)가류파트 '힘모아 분임조'가 TPM 부문에서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2년에는 현장개선 부문에서 (YP)재료파트 '처음 분임조'가 대통령상 금상을, 2013년에는 TPM 부문 (YP)가류파트 'C1분임조'와 현장개선 부문 (YP)정련파트 '표준작업 분임조'가 각각 대통령상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이후로도 넥센타이어는 해마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끊임없는 품질 개선과 생산성을 인정받았다.



현장개선, 자유형식, TPM 세 부문에서 대통령상 수상

올해 열린 대회는 시·도 예선을 거쳐, 298팀 2,700여 명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진출, 13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다. 그중 넥센타이어는 현장개선 부문에서 (YP)생산2팀 가류파트 '땀방울 분임조'가 대통령상 금상을, 자유형식 부문에서 (CP)생산1팀 재료파트 '명품 분임조'가 대통령상 은상을, TPM 부문에서 (CP)생산2팀 가류파트 '가람 분임조'가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품질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며, 대통령 표창 및 총 43명의 분임조원 전원에게 대통령 메달이 수여된다.

〈다큐멘터리 3일〉과 함께한 창녕공장의 72시간

반복되는 일상 속 72시간(3일)을 보내며 그 안에서 낯선 일상을 관찰해온 KBS의 〈다큐멘터리 3일〉이 넥센타이어의 이번 대회와 창녕공장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촬영한 내용은 9월 20일 22시 50분 KBS1 TV에서 방영됐으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땀방울, 그리고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겨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



넥센타이어가 함께한
창녕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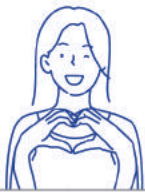


함께 소통하는 건강한 하루

9월 5일, 창녕군 창녕농협공판장에서
'하하동동+어울림데이(이동복지관)' 행사가 열렸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떠들썩하고 흥겨웠던 행사 현장에 함께해보자.

글 이다영 사진 이맹호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나섰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비쁜 하루의 문을 열었다. 창녕농협공판장에서 열린 '하하동동+어울림데이(이동복지관)' 행사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창녕군과 대지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하고, 지역주민과 넥센타이어 봉사자가 식사 제공과 재능 나눔 등 문화 소외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지역 복지 프로그램이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흥겨운 풍물놀이로 시작된 행사 공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쪽에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재능 나눔 부스에서는 손·피부 마사지, 노래교실, 한방 진료, 네일 아트, 풍선 아트 등의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자로 참여한 넥센타이어 직원들은 행사 전 마사지 속성교육을 받은 후 재능 나눔 부스에서 어르신들의 손 마사지를 도왔다. 서툴지만 열심히 마사지하며 봉사에 임하는 직원들이 고마웠는지, 어르신은 직원에게 부채질을 해주기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연을 구경하시는 어르신 테이블 앞의 접시가 비거나 음식이 부족하면 바로바로 음식을 채우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힘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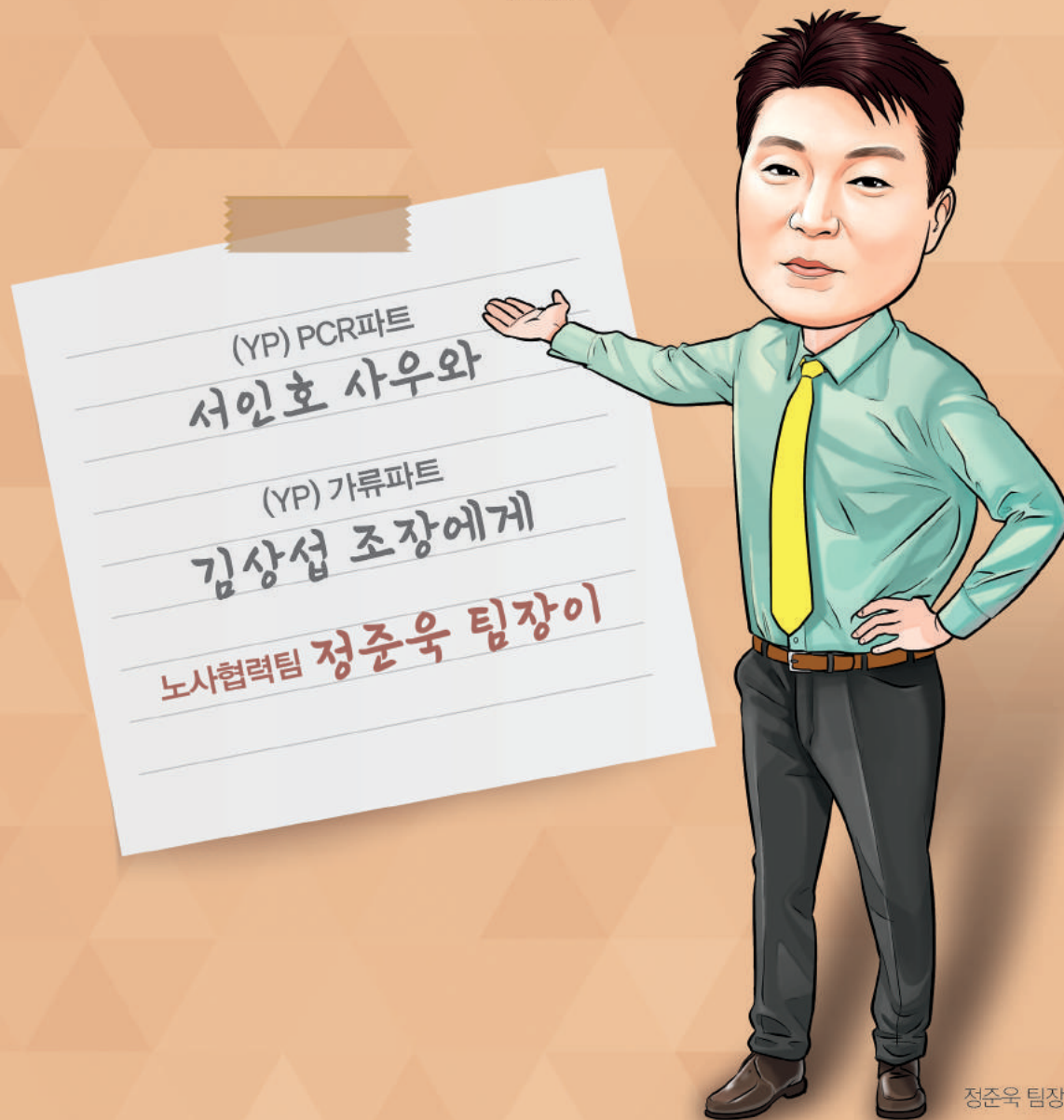
이 밖에도 넥센타이어 봉사자들은 점심시간에 배식 차에서 배식을 받아 음식을 나르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설거지를 도맡았으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켰다.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바쁘게 보낸 하루였지만, 창녕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㉞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합시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더욱 멋진 사람이겠지요.
동료의 꾸준한 선행을 칭찬하는 말을 당사자에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우 넥센〉이 당신의 멋진 칭찬을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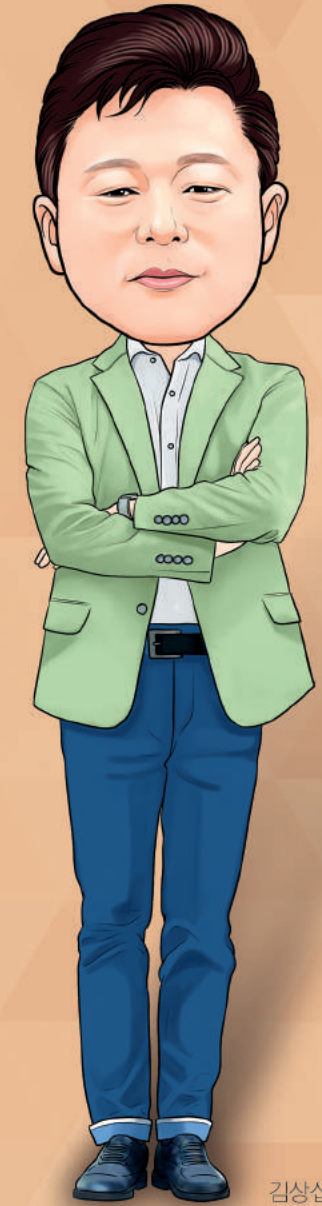
정리 이다영



정준욱 팀장



서인호 사우



김상섭 조장

양산공장 봉사동호회 '희망나눔미'는 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이 양산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 결성한 동호회입니다. 현재 1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고, 매주 근무조에 맞춰 개인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호회 설립부터(2019년 1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봉사활동을 하시는 서인호 사우님, 김상섭 조장님. 희망나눔미 단톡의 인증샷을 볼 때마다 진정한 '넥센 젠틀맨', '넥센 멋쟁이'라고 생각합니다. 35℃가 넘는 무더위에 이 집 저 집 다니며 땀을 흘리면서도 즐거워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나눔의 행복을 느껴봅니다.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장애인 가정을 돌보고, 반찬도시락 배달과 고충을 청취하여 개선하시는 희망나눔미 봉사서를 박경만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나눔미 ~~ 파이팅!!!!!!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우리가 함께라면
굳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즐거운 우리 팀을 만드는 방법

서로 촘촘하게 연결시키는 것부터

출근하는 매일매일이 손꼽아 기다렸던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활성화 전문 컨설팅 기관

JLAB의 컨설턴트 김준성 대표가 즐거운 팀을 가꾸는 방향을 제시해준다.

어차피 다녀야 할 회사라면 즐겁게 다녀보자.

글 김준성

나와 똑같은 외모와 성격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이

조직, 팀도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지구상의 어떤 팀도 '나'의 팀과 같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팀에 필요한 요소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좋은 거름을 뿌려줘야 한다.

개인과 개인이 나아가 하나의 팀을 이루기까지 사적인 접점과 공적인 접점, 그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팀워크를 위한 팀원 사이의 교류

즐거운 여행처럼 우리 팀에도 흥겨운 분위기를 채우고 싶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까? 우선 팀원과 팀원을 촘촘하게 연결시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화장실도 가고,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커피도 함께 마신다. 즉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업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다.

여행을 가는 것처럼 즐거운 기분을 우리 팀에 심고 싶다면 '조직 내 관계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적인 연결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선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업무적인 관계의 사례를 보자. 마케팅팀 최 팀장은 우리 회사에서 브레인으로 통한다. 좋은 학벌에 경력도 화려하다. 생산팀 황 반장은 생산팀에서 굵은일을 잘 처리하며 재직 기간도 15년이나 된 베테랑 생산 직원이다. 당연히 마케팅팀 최 팀장과 생산팀 황 반장은 서로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마케팅팀 최 팀장과 생산팀 황 반장이 조직 내 관계망에서는 서로 연결선이 보인다. 서로 업무를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연결선이 생긴 걸까? 사실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같은 교회에서 만난다. 즉 업무적인 관계는 없지만 종교 활동에서는 긴밀한 관계다.

이와 같은 조직 내 비업무적인 관계 사례는 우리 회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잘되는 팀을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심플하게 생각하자. 팀원과 팀원 간 효과적인 업무 배분에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비업무적인 교류도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팀엔 이런 처방



창의력이 필요한 팀

“다양한 생각이 나오지 않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 도출은 일이니까 억지로 하고 있어요.”

팀원 간에 자연스러운 아이디어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자

- 함께
〈판매왕 선발전〉을
- 실내에서 짝을 지어 팀원들과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특정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일종의 판매 게임이다.
- 1 팀을 짝다
 - 2 10분 동안 정해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팀원과 상의해 적는다
 - 3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 발표한다
 - 4 발표가 이상적인 팀을 선발한다



소통이 필요한 팀

“팀원들끼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명하복의 의사결정이 자주 이루어져요.”
 “부장님과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말이 안 통할 지경이에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 함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를
- 서로 말하지 않은 채로 의사소통을 통해 생각을 알아맞히는 게임이다.
- 1 팀을 짜고 조장을 정한다
 - 2 조장이 앞으로 나가 주어진 제시어를 말하지 않고 몸짓으로 설명한다
 - 3 가장 먼저 맞히는 팀이 승리한다



신뢰가 필요한 팀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신한테 유리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고 해요.”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팀원 간의 개인 정보를 공유해보자

- 함께
〈감정신호등〉을
- 팀원들이 감정신호등 양식에 자신의 선호, 기피 상황을 적고 동료들과 공유해보는 간단한 게임이다.
- 1 이름과 신호등의 색깔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적어 넣은 표를 만든다
 - 2 빨간 포스트잇에는 자신이 참을 수 없는 기피 상황(ex. 예고 없는 업무 부과), 노란 포스트잇에는 그저 그런 보통 상황(ex. 작은 목소리), 파란 포스트잇에는 선호하는 상황(ex. 퇴근 후 치맥)을 적는다
 - 3 자신의 것을 돌아가며 발표한다
 - 4 서로의 발표를 기억하고 유념한다



웃음이 필요한 팀

“팀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요.”
 “상사의 안 웃기는 농담에 억지로 웃는 게 너무 힘들어요.”
 “팀원들이 너무 호응이 없고 협조도 떨어져요.”

팀원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서로 가볍게 웃고
스킨십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해보자

- 함께
〈누굴까?〉를
- 팀원들이 평소에 가진 버릇이나 습관을 말없이 표현해 누구인지 맞혀보는 게임이다.
- 1 팀원들이 동글게 앉는다
 - 2 제비뽑기 통해 팀원 모두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
 - 3 돌아가며 제비뽑기를 하고 원 안에 들어가 자신이 뽑은 사람에 대해 열심히 몸으로 표현한다

66

조직은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다. 모세혈관이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고,
그 속을 혈액들이 오고 가야
건강한 생명체다.

99



팀워크를 이끄는 회사의 시스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팀이 있다면, 갈등 해소를 위해 회사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권장된다.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도 동료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팀원들이 서로의 일뿐만 아니라 일 아닌 것(동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동료의 취미 등)들을 서로 알게 하고 함께 이해하게 해야 한다.

서로 연결 고리가 촘촘해질수록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서로 잘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얼굴 붉힐 일이 적어지고, 우리 팀에도 웃음소리가 많아진다.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고객에게까지 전염되는 젠틀 자이언트(Gentle Giant moving company)라는 회사의 사례를 보자.

젠틀 자이언트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내 이사집 회사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회사는 이사를 맡긴 고객들로부터 직원들의 서비스가 감동이라는 입소문이 자자하다.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고객의 짐을 자기 집처럼 포장하고 옮겨준다는 것이다. 혼자 들어도 되는 짐을 만약을 대비해서 두 명이 함께 들고 가는 모습은 젠틀 자이언트 이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젠틀 자이언트사 구성원들에게 일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힌트는 ‘스타디움 런(Stadium Run)’이라는 전통적인 회사 행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정 시기가 되면 젠틀 자이언트 직원들은 근처 운동장 계단을 함께 뛰는 행사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고, 서먹했던 구성원들은 친밀해진다. 서로 사귀는 통해 너와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조금만 더 하자’라는 마음이 생긴다. 조직은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다. 모세혈관이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고, 그 속을 혈액들이 오고 가야 건강한 생명체다. 우리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일은 여기까지다’라는 식의 생각은 전체를 살리는 생각이 아니다. 개인 간 거리를 좁혀서 서로 좀 더 이해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권한다. 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 소통 채널을 강화해보길 권한다. ㉞

가장 이상적인 '우리 팀'의 모습은?

회사에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모습의 팀 중 당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넥센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우리 팀'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정리 이다영



Q 나와 우리가 되어주는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세요.

-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자. 누군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 서로의 생각이 뒹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 최재석
- 먼 훗날 내 젊음을 바친 것에 대해 후회 없고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는 직장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 심재범
-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 보아요 • 서기현
- 변하고 바뀌라! 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 정내운
- 수고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산다 • 황도인
-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언행일치-술선수범할게요. 모두 파이팅!) • 곽용운
-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쉽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 천경우
-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 신현명
- 너와 나의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 나눠요~ • 송준우
- 고객만족팀 선 • 후배님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악성고객을 충성고객으로 만들 때 일의 보람을 느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하루도 파이팅 입니다!! • 유민
- 그동안 힘든 역경을 다 극복해온 우리 넥센의 저력을 믿습니다^^ • 박병일
- 현재에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동료들~ 파이팅 • 이성필
- 신속 정확한 업무, 신속한 퇴근 • 김성훈

Q 우리 팀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이상적인 동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동료	105명	32.11%
굳은일도 도맡는 배려심 강한 동료	82명	25.08%
능력이 우수해 배울 점이 많은 동료	79명	24.16%
신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동료	55명	16.82%
기타	6명	1.83%

-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동료·한재호
- 온탕, 냉탕을 필요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동료
*윤용진

Q 넥센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우리 팀의 모습은 어떤 것 인가요?

상호보완적 존재. 장점은 복돋아주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관계를 이룬다	109명	38.25%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 모든 팀원들이 권위 의식 없이 평등하게 일한다	73명	25.61%
으쌔라 으쌔! 동고동락.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무엇이든 함께하고 나눈다	69명	24.21%
사생활 터치는 절대 'NO'. 일적인 것만 함께한다	29명	10.18%
기타	5명	1.75%

- 업무적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 김병갑
-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겸비한 팀 · 조유민

Q 우리 팀원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맛집 탐방하기	90명	35.02%
영화, 공연 등 문화생활하기	71명	27.63%
회사에서만 보기	44명	17.12%
흥겹게 이어지는 술자리	40명	15.56%
기타	12명	4.67%

- 친구처럼 지내기·음구식
- 동료 가족과 함께 여행 가기·심도욱

Q ‘혼자’였을 때보다 ‘팀’과 함께라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힘들 때 서로를 북돋아주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간다는 것	126명	44.37%
일적으로 협력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122명	42.96%
팀원을 보며 자극을 받고 선의의 경쟁으로 더 성장해나갈 수 있는 것	26명	9.15%
점심에 밥을 함께 먹어 외롭지 않은 것	5명	1.76%
기타	5명	1.76%

- 회사 생활 외적으로도 어려운 점을 함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안병규

우리만의 회식 문화

번한 회식은 NO! FUN한 문화회식은 YES!

기존의 획일적인 회식 문화를 벗어나, 건강한 회식 문화 활동을 통해 업무 효율 증대, 부서 단합 및 구성원의 건강 관리까지!! CA가 주최하는 문화회식을 소개합니다. 여러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넥센타이어만의 건전한 회식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어떤 재미있는 문화회식이 있었을까요?

정리 개발지원팀 탁세원 대리/정유미



실차평가팀

한원당 김광필 선생 고택 및 도동서원 방문

저희 실차평가팀은 시험장 인근의 고택과 서원을 방문해 고즈넉한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했습니다. 대구PG 인근에 위치한 조선시대 성리학자 한원당 김광필 선생의 고택과 도동서원을 찾았는데,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낙동강 경치를 바라보며 생과일주스와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니 팀원들과도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G.생산기술팀

실내 암벽등반 도전

G.생산기술팀은 최근 개봉한 영화 <엑시트>를 통해 핫해진 실내 암벽등반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양산의 더 하트 클라이밍이라는 곳에서 강습을 받고 암벽을 올랐습니다.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실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실내 암벽등반. 준비운동도 빠먹지 않고 재미있게 즐기다 왔습니다. 벽을 오르다 보니 금방 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팀원들과 함께 체력도 단련하고 새로운 스포츠를 해보니 새로운 면을 많이 알게 되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발지원팀

구지오토캠핑장에서 캠핑하기

개발지원팀은 회사 밖 야외 캠핑장에서 이색적인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캠핑카에 처음 묵어봐서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불 피우는 것이 어설퍼 연기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니 캠핑 온 기분도 나고 즐거웠습니다. 일하면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캠핑을 강력 추천합니다. 자연 속에서 팀원들과 편하게 놀다 오니 더 끈끈해진 기분입니다.



(CP)생산기술팀

실내 낚시로 힐링하기

저희 (CP)생산기술팀의 문화회식 3차전을 보여드립니다. 장마 때문에 습해서 야외로 나가기 힘들어 이번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시원하게 실내 낚시터에서 향어와 붕어를 낚기로 한 우리 팀 사람들, 짜릿한 손맛을 제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실내 낚시를 신나게 즐기고 신선한 회와 치킨을 먹으며 문화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문화회식과 함께 한다면 스트레스는 이제 안녕~ ㄹ

팝핀현준 & 박애리 부부 그들이 사는 세상

대한민국 1세대 스트리트 댄서 팝핀현준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 박애리가 부부로 산 지 어느덧 10년을 바라본다.

국악과 팝핀댄스, 전통과 현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던 이들은
예술적 파트너로서, 부부로서, 어떻게 '우리(We)'를 만들어가고 있을까.

글 김지수 사진 이영호



끌어주고 밀어주며, 예술의 새 지평을 열다

소리꾼의 '쾌지나칭칭' 가락이 신명나게 울려 퍼지자 힙합바지에 모자를 비틀게 쓴 댄서가 그 가락에 맞춰 팝핀댄스를 춘다. 구수하게 한 곡조 뽑아내던 소리꾼은 이내 댄서와 함께 팝핀의 리듬을 탄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묘한 조합이 오히려 절묘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순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국악인 박애리와 국내 스트리트 댄스의 선구자 팝핀현준 부부의 무대다.

팝핀댄서와 국악인이라는 의외의 조합으로 만남부터 화제를 모았던 팝핀현준과 박애리는 부부로, 예술적 파트너로 어느덧 9년의 세월을 함께 해오고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과 공연 무대에서 국악과 팝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근본도 감성도 다른 두 예술을 한 무대에서 새로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무대가 그토록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의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 부부이기에,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준 씨와 제가 부부가 아닌 그저 공연을 위해 만난 사이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예술적 결합을 이뤄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부부이기에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는 거죠.”

팝핀현준은 그녀에게 늘 공연을 위해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호기심 많은 소년처럼 전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저 장단은 어떤 장단이야? ‘저 춤 이름은 뭐야?’ 하고 계속 질문해요. 언젠가 공연을 마친 후 집에서 쉬고 있는 저에게 현준 씨가 춤 배틀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국악의 대중화를 외치면서 정작 젊은 세대들이 무슨 노래를 듣는지, 무엇에 열광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저를 현준 씨가 늘 자극해주죠.” 그녀는 팝핀현준을 만나서 또 다른 세상을 얻었다고 한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였던 그녀에게 팝핀현준은 전통 음악의 대중화와 그 틀을 깨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팝핀현준 역시 아내 박애리 덕에 더 넓은 예술 세계를 경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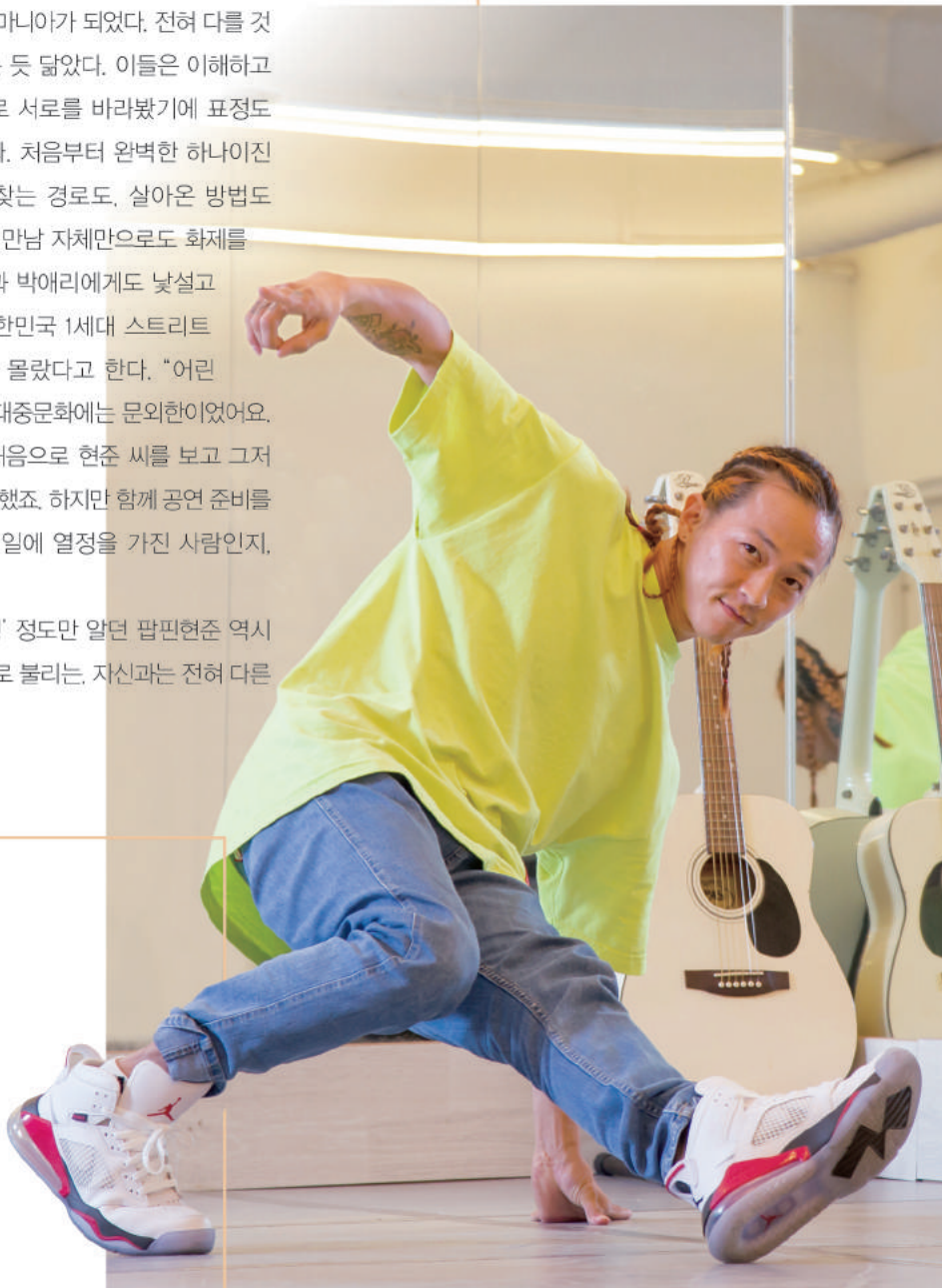


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힙합이라는 장르와 댄서에 대한 오해의 시선을 점점 바꾸어나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제가 하고 있는 장르 자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어요. 하지만 아내와 활동하면서 그런 부정적 인식이 많이 사라졌어요. 혼자서는 꺾 수 없었던 벽이 아내와 함께했을 때 가능해진 거죠.”

진정한 ‘우리’의 완성,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운동화를 신지 않던 박애리는 팝핀현준과 살면서 이제는 생활 한복에도 운동화를 신을 만큼 운동화 마니아가 되었다. 전혀 다를 것 같았던 이들의 이미지도 남매를 보는 듯 닮았다. 이들은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더 집중해서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기에 표정도 이미지도 닮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이진 못했다. 타고난 성향도, 즐거움을 찾는 경로도, 살아온 방법도 달랐다. 국악인과 팝핀댄서의 만남은 만남 자체만으로도 화제를 불러 모을 만큼 의외였고, 팝핀현준과 박애리에게도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다. 박애리는 당시 대한민국 1세대 스트리트 댄서였던 팝핀현준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만 매진해오다 보니 대중문화에는 문외한이었어요. 공연 준비를 위해 첫 미팅을 한 날 처음으로 현준 씨를 보고 그저 예쁘장한 미소녀 연예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공연 준비를 해나갈수록 현준 씨가 얼마나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예술가인지 알게 되었죠.”

국악이라고는 ‘아리랑’과 ‘도라지타령’ 정도만 알던 팝핀현준 역시 박애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리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낯선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국악하는 사람이라 고리타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인상과 달리 이야기하면 할수록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권위 의식도 없고요. 가끔 팝핀을 ‘스트리트 문화’로만 치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저보다 더 깊은 예술혼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겸손하고 순수했어요. 그런 점에 반해 대신했죠.” 이런 그들이 예술적 파트너로, 부부로 지금까지 함께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애리는 남편과 자신은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지만 성격만큼은 정반대였다고 말한다. “남편이 직선이라면 저는 곡선이예요. 남편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인 반면,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우회적으로 말하거나 제 생각은 잠시



뒤로 접어들 때도 많지요.” 처음에는 대화할 때 답답한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대화하면서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게 되었다. 팝핀현준은 아내가 더 자신감을 갖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고. “아티스트들은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고, 그 모든 일은 세상과 소통해야 희열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소통은 제가 다 해주겠다고 말해요. 아내 역시 저를 아티스트로 존중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건 물론, 가정은 걱정 말고 외국에 나가 공연도 보고 친구도 만나라고 하고요.”

아홉 살 딸아이의 부모이기도 한 팝핀현준과 박애리는 부부 사이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와 어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서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혼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술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면 혼내지 않고 설명을 해줘요. 이것이 저희 세 식구가 진정한 하나가 되어가는 방법이지요.”

팝핀현준은 아내와 함께하는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가로서 더 깊어지는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아내는 지난해 심청가 완창회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판소리 다섯 마당을 모두 완창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쯤 두 번째 완창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해요. 저는 이번 9월에 새 미니앨범을 발매할 거고요. 총 다섯 곡이 수록된 앨범인데 기획부터 프로듀싱까지 모두 제가 직접 작업했죠. 댄서이자 가수로서 팝핀현준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¹⁰

환경 살리기 캠페인



환경 살리기 캠페인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 문제에 개개인의 목소리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캠페인은

아픈 지구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희망의 불씨다.

우리도 외면하지 말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지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에 힘을 보태보자.

글 이다영

하루 약 41만 톤이 배출되며 날로 넘쳐나는 쓰레기,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오염된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생명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리함을 추구한다. 이러한 개인들의 각성을 돕기 위해 환경단체에서는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 캠페인은 환경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보자.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중 하나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구에게는, 환경에게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자연기금 (WWF)



세계자연기금은 세계적인 비영리 환경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함께 이어가는 희망,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Plastic Free Challenge)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이 제주패스㈜와 공동 기획한 릴레이 친환경 캠페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이 캠페인은 ‘No More Plastic island’를 주제로 공식 SNS 계정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텀블러 사진을 찍어 챌린지



내용과 해시태그(#)를 달아 인증한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연계시키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미션 완료 후 다음 릴레이 주자를 2명 이상 지목해야 하며, 지목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인증을 이어가야 한다. SNS에 인증돼 건당 1,000씩 적립된 수익금은 현재 제주도 환경보전활동과 세계자연기금의 자연보호활동 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구를 위한 어둠, 어스 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으로 유명한 ‘어스 아워’는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됐다. 서울시 포함 178개국 1만 2,700여 곳에서 랜드마크가 소등되며, SNS를 통해 전 세계 2억 6,000만 명이 참여한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소등하는 행사로,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약 2.4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 도시 단위로 진행되는 어스 아워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 해결책이 모두의 손에 달렸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린피스 (Greenpeace) GREENPEACE

그린피스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캠페인 단체다.

지구를 살리는 장보기 방법, 플라스틱 없을 지도

‘플라스틱 없을 지도’는 그린피스가 서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없이 장을 볼 수 있는 가게를 보여주는 지도로, 그 기본은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담고 있다. 플라스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32명이 모여 결성한 ‘착한 가게 원정대’가 3주간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착한 가게를 한데 모은 지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시민이 장바구니와 다화용 용기를 가지고 갈 경우 절반 이상의 식품을 플라스틱 포장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지도를 보고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조금 더 빠르고 큰 변화를 위해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버리지 말고 한번 더 생각, 불편의점

그린피스에서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불편의점’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행사장에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전시 팸플릿도 없고 비닐봉지도 없다. 물물교환을 통해 나에게 쓰레기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하고, 버리는 물건을 재탄생시킬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무분별한 소비를 막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



Friends of the Earth

지구의 벗은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과 함께 세계 3대 환경보호단체로 지구온난화 방지, 산림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몸도 마음도 건강, 런 포 제로 웨이스트(Run For Zero Waste)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이 주최하는 ‘런 포 제로 웨이스트’는 지구를 위한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이다. 플로깅이란 달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작은 가방에 주워 담는 운동을 말한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 운동은 북유럽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퍼졌다. 지구의 벗에서도 꾸준히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운동복, 사용했던 비닐봉투나 가방, 장갑 같은 간단한 도구와 건강한 몸과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나 도전 가능해 관심이 뜨겁다. 길가에 쓰레기가 없는 그날까지 런 포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은 계속될 예정이다.



영원히 남겨질 것들을 영으로, 메이데이 챌린지(Mayday Challenge)

‘메이데이 챌린지’는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에서 시작된 지구의 벗이 주최하는 환경 캠페인이다. 플라스틱 프리 줄라이는 말 그대로 7월 한 달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캠페인이다. 메이데이 챌린지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션인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화장지 대신 손수건,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모습을 SNS에 올려 인증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어가는 바다거북을 살리고 싶은 사람,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 지구를 지키고 싶은 사람. 그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주기적으로 기수를 모집하고 있으니 지구를 향한 관심을 행동으로 이어가 보자. ㉞



지난여름 추억을 함께하는 우리

꿀 같은 여름휴가는 쏘살같이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돌아왔다.
마른장마로 유난히 습한 기운이 가득했던 2019년 여름.
우리 넥센인들은 무엇을 하며 더위를 이겨냈을까?
넥센인들이 보내준 휴가 사진과 함께 지난여름을 추억해보자.

정리 정유미



액티비티로
무더위도 신나게
날려버리기



성과혁신팀 김소희 사원

저는 여름휴가를 국내로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대전 용두해수욕장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플라이보드라고 제트스키에
연결되어 물의 힘으로 하늘을 나는 느낌을
낼 수 있는 수상 레저예요!!
초보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아이언맨이 되어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10분에 5만 원이라는 사악한 가격이지만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어서 또 타러 가고
싶을 겁니다.

개발지원팀 탁세원 주임연구원

대학교 동기 친구들과 함께 PSY의 흥행소
광주 콘서트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에
참석해 신나는 피서를 즐겼습니다.
공연 중에 물대포로 온 객석에 물을
뿌리는데 더위도 날아가고, 노래와 신나는
음악을 따라 몸을 흔드니 그동안 업무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를 함께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재충전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2019년도 더욱 열심히 매진하는 넥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바다 건너
멀리 떠나기



FIRST DAY OF ISSUE



인사팀 고용운 과장

'우리' 가족 처음 베트남 여행~!
뜨거운 태양 아래 굴하지 않고 열심히
놀아서 많이 타서 왔어요~)



채널운영팀 김윤수 대리

7월 6일부터 14일까지 동유럽 3개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을 다녀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스트리아 빈브룬 궁전입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인 빈브룬 궁전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사진에서 보드시피 하늘 또한
매우 청명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빈브룬 궁전 뒤편 정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OE영업기획팀 박다민 대리

사촌동생이랑 여름휴가로 다녀온
하와이입니다.
8박 9일 동안 천국 같은 하와이에서
리프레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신희여행이 아니어도 친한 친구와
가기에도 좋은 하와이였습니다.



답답한 속 뽕뚱어줄 바다 보러가기



노사협력팀 정준욱 팀장

포항시 호미곶 인근 마을에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충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딸과 경기도에서 군복무 중인 아들의 일정이 우연히 맞아 가족끼리 2박 3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2019년 여름휴가는 하늘이 도와주셔서 좋은 곳에서 좋은 추억 쌓으며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뽕뚱 가족사진을 한번 찍어봅니다.



OE기술팀 정창두 대리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당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당일로 다녀오기엔 무리가 있는 거리지만, 남해 금산에 올라 한려해상공원의 전경을 보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장합니다.
새벽에 출발해 오전엔 남해 금산을 등산하고 오후엔 근처 상주은모래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이른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산의 아름다운 전경과 상주은모래해변에서의 즐거웠던 해수욕은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고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물놀이로 더위 이겨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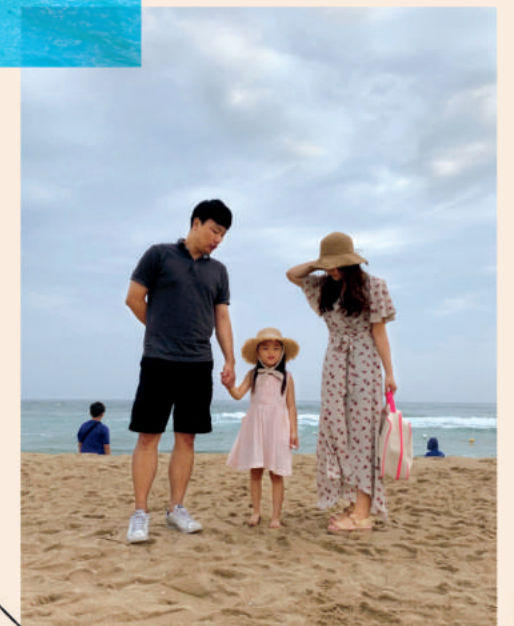
생산기획팀 박인혁 과장

아들과 제주도로 호캉스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술술 고집이 심해져서 이래저래 애를 많이 먹었지만 잊지 못할 좋은 추억 하나가 늘었네요. 아들은 물과 많이 친해져서 휴가를 다녀온 이후 계속 물놀이가자고 하네요.



인사팀 김주엽 과장

저희 가족은 올해 제주도와 동해바다를 다녀왔습니다.
6살 딸에게는 역시 물놀이가 최고인 거 같습니다.
장난꾸러기 6살 딸이라 예쁜 가족사진을 찍기 쉽지 않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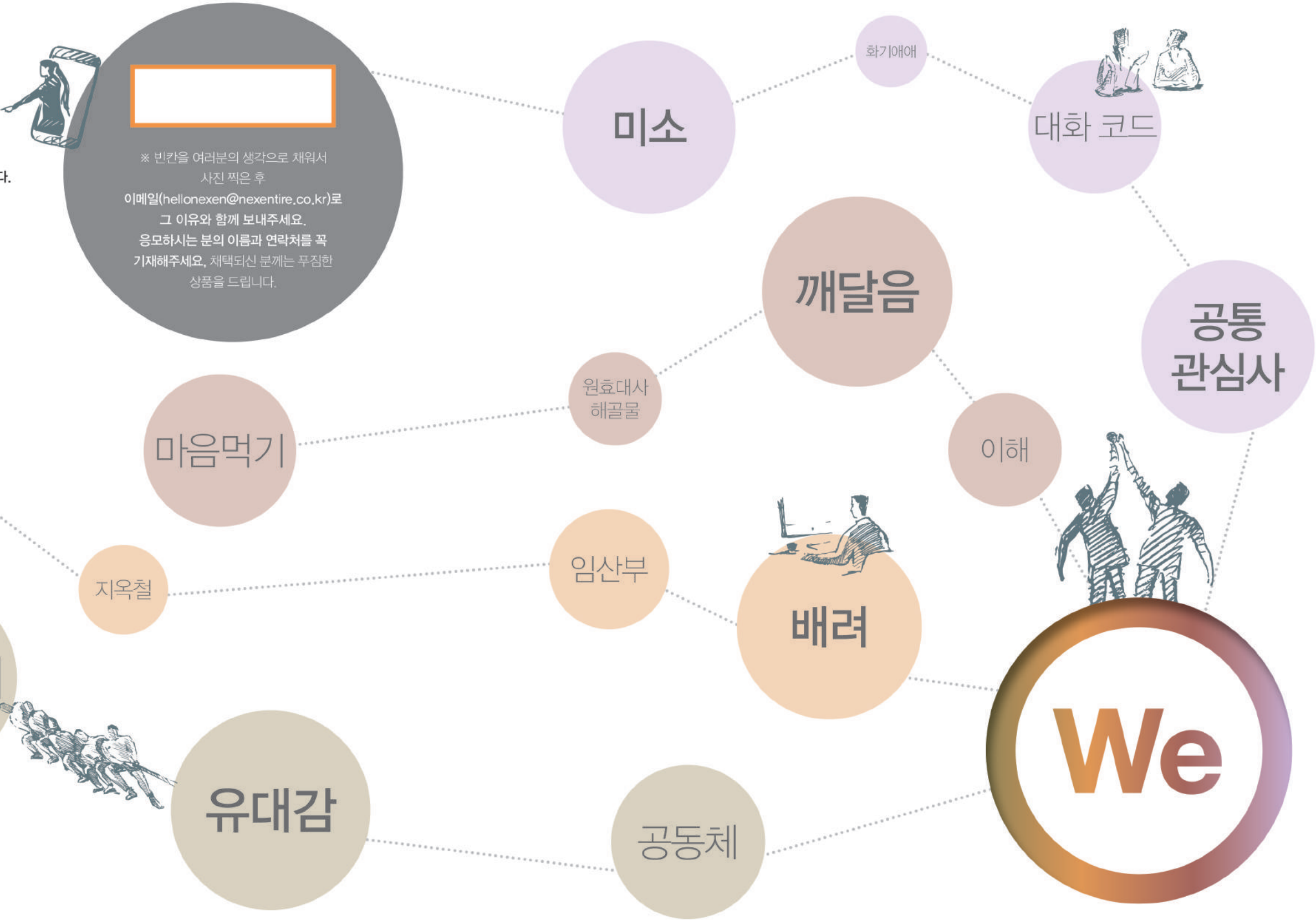


나만의 한 단어

넥센 싱크빅

한 가지 사물을 보고 사람마다 떠올리는 느낌이나 생각은 제각각이다.
관점의 차이인 것이다. 거기서 우리의 가능성은 시작된다.
언제 어디서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다. 넥센인만의 기발한 의식의 흐름을 공유해보자.

글 이다영



산골 사람들의 순수함과 겸손을 담은

화천의 가을

평화의댐이 가까운 화천군 화천읍 동촌2리
비수구미마을에서 시작된 단풍은 해발 680m에 위치한
해산령 터널을 지나 화천 전역으로 이어진다.

가을이면 곱게 물들어가는 화천의
숨은 단풍 명소들을 구석구석 둘러본다.

글/사진 홍원문 사진작가



대한민국 오지 여행 일번지, 비수구미계곡

아흔아홉 굽이 해산령 정상에서 비수구미마을까지 내려가는 약 6km 트레킹 코스는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단풍을 만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흐르는 계곡물은 마셔도 좋을 정도인 청정 1급수. 그 맑은 물을 마신 오방색 단풍들은 앞다투어 곱게 물들어간다.

계곡마져 붉게 물든 비수구미에서 산채비빔밥으로 가을 맛을 만끽하고 평화의담으로 길을 잇는다. 파로호를 옆에 두고 가는 길은 '한국의 차마고도'라 부르고 심을 정도로 깎아지른 절벽에 단풍으로 수놓인 길이 이어진다.

파로호 상류에 위치한 이 길은 이른 아침에 찾으면 더욱 좋다. 물안개가 피어나며 환상적인 풍경이 연출되는 가운데, 땀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에 기분마저 상쾌해진다. 그 와중에 이른 시간부터 뉘싯대를 드리운 강태공을 마주친다면 더할 나위 없다. 길고 긴 여운. 하지만 뉘싯대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강태공의 기색을 보니 하루 종일 끈질기게 기다릴 태세다. 물 위에서 춤을 추는 물안개와 강태공의 여유로움이 가을을 닮았다. 사실 여행의 묘미는 이런 풍경과 만날 때 더욱 감성이 충만해진다.

TIP

비수구미 입구 가는 법

화천읍에서 평화의담으로 길을 잡는다. 구부령대는 산길을 지나면 해산터널이 나오는데,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에 주차할 공간과 비수구미 입구가 있다.

INFO 단산유원지

📍 주소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313-3

1 비수구미계곡의 맑은 물을 마신 단풍들이 오방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다.

2 풍산마을에 흠날리는 노란 은행잎의 향연.



평화의담에서 다시 해산령으로 오르는 길에서는 자작나무의 고운 자태가 더해지며 울긋불긋한 산하를 만나게 된다.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해산의 단풍은 단연코 절정이다. 설악산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딱 질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

해산령을 내려와 풍산마을에 다다르면 이제는 노란 은행나무 숲길이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460번 지방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은행나무길은 1km 정도로 파란 하늘과 노란 은행나무의 절경이 발길을 사로잡는다. 햇살이 퍼지면서 기온이 올라가지만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이 마음을 식혀준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장면을 볼 때면 "와 아름답다"는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화천 산소길에도 번져가는 가을 풍경

풍산마을에서 처녀고개를 넘어 탄산유원지를 경유하면 북한강변을 따라 산소길이 시작된다. 화천읍으로 향하는 길목에 김훈 작가가 작명했다는 '숲으로 다리'가 나타나고, 다리가 이어주는 마을 살랑골에도 가을이 담겼다. 산을 넘어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보석같이 빛이 나고, 잔잔한 물속에도 가을빛이 역력하다.

산소길을 따라가는 산책도 참 낭만적이다. 억새풀이 곱게 피어나는 북한강변의 산소길은 이름처럼 마구 산소를 뿜어내는 듯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 이 산소길이 청정 도시 화천을 대변하는 장소인 것 같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느티나무 숲속 기차길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이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며 연인들의 속삭임이 들릴 것 같은 장소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이런 곳에서 프리포즈하면 200% 성공할 듯한 분위기다.

산천어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에 지리한 숲에도 가을이 무르익으며 축제를 준비하는 듯했다. 2020년 산천어축제는 1월 4일부터 시작한다. 축제장 주변을 서성이다 보니 지난 축제의 감흥이 되살아나며 다가올 산천어 축제가 벌써 그리워진다.

아를테마수목원에서 연인을 만나다

화천을 빠져나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사랑나무가 있는 아를테마수목원을 찾았다. 다양한 나무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자작나무길에서 깨알이 쏟아지는 연인도 마주쳤다. 그들은 “사랑나무를 찾아왔다가 자작나무길이 너무 아름다워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파란 하늘과 노란 자작나무 잎새들. 이 순간만은 오로지 두 연인을 위한 길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감동을 주는 마력이 있는 나무, 스스로에게 작위를 부여해 ‘자작’이란 이름이 붙은 것일까? 자작나무길 외에도 아를테마수목원에는 메타세쿼이아길, 측백나무길, 단풍나무길 등이 있어 북한강의 속삭임을 들으며 산책하기 좋다.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시켜줄 반지교가 그림같이 눈에 들어오면 사랑나무도 모습을 드러낸다. 사랑나무 주변 풍경은 가을이면서 겨울도 함께 보인다. 사랑나무는 수몰된 거례리 마을의 흔적이다. 1965년 춘천댐 준공으로 인공호수 춘천호가 생겨났고, 화천발전소 아래까지 바다와 같은 호수를 만들어놓았다. 수몰되기 전 거례마을은 200호 이상이 드넓은 들판에서 풍요롭게 살았다 한다.

거례마을에는 화천에서 규모가 꽤나 큰 교회가 있었다. 화천 지역의 어느 학교에도 없던 풍금이 있었을 정도니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교회 위 언덕에 있던 느티나무가 바로 사랑나무다. 교회를 비롯한 마을 전체가 수몰되니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일부는 지금의 거례리에 새 동지를 틀었다. 느티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고, 하천 부지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쉴 수 있는 그늘을 내어주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INFO 아를테마수목원

📍 주소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14-1

사업으로 하천 부지에 있던 농지를 모두 회수하고 지금처럼 공원이 조성된 것이다.

공원화되면서 화천군에서는 주변을 재정비했고, 느티나무 주변에 꽃들을 심고 가꾸었다. 북한강변 호수와 어우러진 느티나무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들판 강변에 홀로 서 있는 느티나무를 ‘왕따나무’라고 불렀다. 수몰된 마을 이야기를 전해주는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하다. 그래서 어느 사진작가가 사랑을 전파하던 교회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정황에 근거해 새로이 ‘사랑나무’라 불렀다. 그러다 블로그와 SNS 등 사진사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몇 년 전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의 새 앨범 수록곡 〈귀를 기울이면〉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화천의 가을은 산골 사람들의 순수함과 겸손을 담은 듯하다.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순수하게 가을을 빚어놓는다. 화천 사람들의 마음도 이런 색이 아닐까. 고운 단풍과 고운 자작나무처럼 영원히 질리지 않을 색. 짙어가는 가을과 조금씩 찾아오는 겨울 사이를 오가는 화천 여행은 행복 바이러스가 번지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준다. 올가을, 그 길에서 화천의 낭만을 즐긴다. ⑩

1 수몰된 마을의 흔적인 사랑나무.

2 아를테마수목원에는 여러 나무들이 종별로 심어져 있어 더 아름답다.

3 마을 주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고마운 나무다.

가을바람에 하늘거리는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하늘은 높아지고 선선한 바람에
나들이 가기 좋은 가을이 돌아왔다.
짧은 계절이 지나가버리기 전에
가을 무드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문화생활을 소개한다.

정리 정유미



가을은 땡땡이가 뛰노는 계절

땡땡이페스티벌

반려견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
가을가를 자라섬에서 열린다. 올해 3회
를 맞는 '땡땡이페스티벌 2019'는 반려
견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화제를 모
으고 있다. 3,000명 잔디밭 위에서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땡땡프
리존'과 털 색이나 체형이 비슷한 반려
견들끼리 모여 걷는 '땡퍼레이드'가 펼
쳐져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
다. 올가을엔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가을 축제로 떠나보자.

기간 10월 26일
장소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문의 02-364-1986

축제



가을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부산불꽃축제

매년 가을밤 광안리해수욕장의 하늘과 바다를 화려하게 빛내는 부산불꽃축
제가 돌아왔다. 세계 정상급 해외 초청 불꽃쇼뿐만 아니라 올해는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한층 더 업
그레이드된 불꽃쇼를 보여줄 예정이다. 거기다 올해는 유료 좌석을 운영해,
인터파크와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좌석을 구매하면 편안하게 불꽃을 즐길
수 있다.

기간 11월 2일
장소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
문의 051-501-6051



10CM X 윤뽀뽀 십센치 그리고
윤뽀뽀 콘서트
2019.11.3(일) 5시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센티한 가을 감성을 아기자기하게

10CM x 윤뽀뽀 - 창원

인디음악계의 의종은 형제 10cm와 윤뽀뽀가 뭉쳤다. 먼저 형인 10cm
는 가을 감성을 살려줄 농염한 목소리와 가사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다. 동생 윤뽀뽀는 형님 10cm의 뒤를 이어 동네 친구와 수다 떠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음악으로 흥을 띄운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
며 많은 팬을 거느린 10cm의 능청스런 입담과 요즘 인디음악계의 대
세로 떠오르고 있는 윤뽀뽀의 귀여운 재롱을 보며 콘서트를 즐겨보자.

기간 11월 3일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극장
문의 1522-2061

공연

40년 진한 우정과 재미를 새롭게

송대관 vs 태진아 라이벌 콘서트 <M> - 창원

트로트계의 양대 산맥 송대관과 태진아가 창원에 뜬다. '송대관 vs
태진아 라이벌 콘서트'는 우리나라 성인가요 역사상 전회 매진이
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콘서트다. 이미 여러 차례 콘서트를 진행했지
만, 2019년을 맞아 연출과 구성을 바꾸어 콘서트를 새롭게 만들었
다. 40년의 우정을 넘어 애증 관계를 자랑하는 송대관과 태진아의
라이벌 콘서트에서 두 남자의 유쾌하면서도 진한 우정을 느껴보자.

기간 10월 26일
장소 경남 창원시 KBS 창원홀
문의 1544-3901



20년 장기 공연의 신화를 유쾌하게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 울산

직장 스트레스와 고민을 모두 <난타>로 날려버리자. 1997년 초연해
지금까지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
는 <난타>. 대사 없이 리듬과 비트, 그리고 상황만으로 구성되어 외
국인도, 어린이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공연을 따라 신나
는 리듬에 맞추어 프라이팬, 도마를 때리다 보면 스트레스와 고민은
어느새 사라지고 웃음만 남을 것이다.

기간 11월 22일 ~ 11월 23일
장소 울산시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문의 1522-3331





home era armisen

에바 알머슨의 Home으로 오세요
행복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친 당신에게,
화사한 행복 한 다발 안겨드릴게요.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2019.09.06-12.08
대구 MBC 특별전시장 열가

새로운 시선으로 일상에서 행복 찾기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in 대구

에바 알머슨의 아기자기한 그림을 따라 일상 속의 행복을 느껴보자. 에바 알머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예술가다. 10년 전 우연히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많다.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해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전시회를 통해 에바 알머슨의 행복한 기운을 얻어보자.

기간 9월 6일 ~ 12월 8일
장소 대구시 대구 MBC 특별전시장 열가
문의 053-744-5400




지평선

어디에 있을까 지평선

카롤리나 셀라스, 문학동네

표지부터 아름다운 이 책은 포르투갈 작가 카롤리나 셀라스의 첫 그림책이다. 지평선은 어디에나 있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일상의 공간 속에서 지평선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2019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이 먼저 눈을 사로잡는다.

#어른이를위한#동화책
#숨은지평선찾기#힐링



유시민
유럽 도시 여행 1

유럽 도시 여행

유시민, 생각의길

알쓸신잡으로 국내 방방곡곡 돌아다녔던 유시민이 이제는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났다. 유시민 작가가 쓴 글에 아내가 찍은 사진으로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가 유럽에서는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 유시민 작가가 알려주는 각각의 도시와 그 속에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시민의#유럽도시탐사
#도시와#수다떨기


전시

새로운 포토존에서 마녀가 되어보기

마녀의 초대장

마녀의 초대장을 받고 마녀가 되어보자. 지금까지는 현실 속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이제는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공간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보자. 작년 서울에서 진행돼 인스타에서 뜨거웠던 <마녀의 초대장> 전시회가 부산에 도착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마녀 마을에서 별을 만드는 마법을 부리는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전시를 따라가며 동심으로 돌아가 마녀 마을을 체험하고 인사가 되어보자.

기간 6월 22일 ~ 11월 10일
장소 부산시 서면미술관
문의 051-805-0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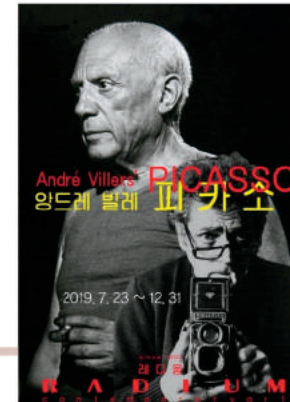
서면미술관
마녀의 초대장
2019. 06. 22 - 2019. 11. 10

새로운 모습의 피카소 만나기

앙드레 빌레와 피카소

앙드레 빌레의 사진전을 따라 인간 피카소를 만나보자. 앙드레 빌레는 피카소를 만나면서 사진가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20년 넘는 기간 피카소의 전속 사진사로 활동하면서 그가 찍은 피카소의 인간적인 모습과 두 사람의 깊은 유대 관계를 볼 수 있다. 앙드레 빌레의 사진에 담긴 피카소의 모습을 통해 피카소만큼이나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앙드레 빌레의 독특한 시선을 느껴보자.

기간 7월 23일 ~ 12월 31일
장소 부산시 레디움아트센터
문의 051-744-1160




Andre Villeret
앙드레 빌레와 피카소
2019. 7. 23 ~ 12. 31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김유라, 위즈덤하우스

7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박막례 할머니.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하나씩 도전하는 할머니의 도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유튜브 영상으로 다 말하지 못했던 박막례 할머니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유튜브 CEO와 구글 CEO도 반한 박막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튜브
#해인사
#막례씨의
#끝없는도전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조선의 미식가들

이제껏 소주, 명조, 고추장, 장어탕이 아니라 맛을 아는 그들의 맛깔스런 문장을

조선의 미식가들

주영하, 휴머니스트

조선의 명사들이 글로 표현한 감각적인 음식 비평을 한데 모아 엮은 책이 나왔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대한 감상을 글로 남긴 미식가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읽어보자.

#군침도는#조선의#맛깔스런#문장들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발자국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썩아가는 신뢰

타이어테크 죽전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직원들의 안전부터 시작해 고객의 안전까지! 모든 안전을 우선시하는 타이어테크 죽전점을 찾아 매장 운영 방식과 고객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다영 사진 이영호



환경



최신식의 새 단장으로 고객을 맞다 성재호 점장

저희 타이어테크 죽전점은 오픈한 지 이제 막 한 달 지난 신생 매장입니다. 저희 매장이 쇼핑센터가 많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여성 고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나 실내 환경을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상권의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직원 모두가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 결과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하고 쾌적한 실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비소라고 하면 떠올리기 쉬운 칙칙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아닌, 쇼핑하러 오셨다가 편안하게 차를 맡겨두고 가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다 박동훈 부장

내부도 자랑할 만하지만, 저희 매장은 다른 매장에서는 구비하고 있지 않은 최신식 장비들을 사용하여 타 매장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최신식 장비가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가격은 주변 매장들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타이어 스캐너를 사용하는데, 이 장비로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측정해 불량 부분을 알아냅니다. 보통 작업자들이 만져보고 육안으로 마모 상태를 판단하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스캐너로 스캔한 후 스크린에 띄워 고객이 직접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죠. 사람이 아닌 기계가 측정해서 알려주고 고객이 직접 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염배성 엔지니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타이어를 교체하시면 열라인먼트는 기본적으로 봐드립니다. 밸런스 같은 경우도 앞과 뒤 모두 체크해드리고, 공기압은 고객의 운전 성향에 따라 조절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시는 분, 일반도로를 많이 다니시는 분,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거기에

따라 측정하고 작업해드립니다. 또 정비도 같이 하다 보니 엔진오일 체크 같은 경정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면 쾌적한 환경과 최첨단 기술에 최상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갖춘 타이어테크 죽전점을 기억해주세요.



서비스



하맹수 대표

안전과 신뢰, 고객들이 넥센의 이름을 보고 찾아오셨을 때는 그에 맞는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충족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이어테크 죽전점,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7(죽전동)
영업시간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8:00(일요일 휴무)
문의 1855-0606

NEWS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0년 연속 1위



6월 28일 넥센타이어가 “글로벌경영협회가 주관하는 ‘2019 글로벌 고객만족 역량 평가제도(이하 GCSI)’ 조사에서 타이어 부문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GCSI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글로벌경영협회가 글로벌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산업경쟁력 지표 제공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고객만족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평가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3주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10만 3,000여 명으로, 평가 항목은 고객만족 요소, 고객 가치, 글로벌 역량, 충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를 렌탈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차량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넥스트레벨’을 시행하는데, 타이어 필요 수량과 서비스 횟수를 고객이 선택해 월 렌탈료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자유 렌탈’을 비롯해 고객 운행 스타일과 소비 성향에 따른 고객 중심의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운전을 위해 고객의 과실에도 타이어를 교환해주는 ‘新 명품보증제도’를 최고급 제품인 ‘엔페라 AU7’, ‘엔페라 AU5’와 ‘엔페라 RU5’에 도입함으로써 프리미엄 고객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NEWS

‘더 넥센 유니버시티’ 2019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TH THE NEXEN univerCITY)’가 2019년 제37회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더 넥센 유니버시티’는 서울 마곡 산업단지에 연면적 57,171㎡,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연구동과 사무동을 포함한 2개 동으로 지난 4월 완공됐다. 건물 외부에는 타이어 트레드 문양을 형상화해 업의 특성을 나타냈으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 옥상 녹화에 의한 열 손실 저감 등이 설계된 친환경 빌딩으로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건물의 중심 녹지 공간인 중정(Courtyard)과 이를 둘러싼 다중나선형 그린루프(Multi-helix Green Roof) 형태의 산책로는 공간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주며 교류와 휴식,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현이 가능한 장소로 구현했다. ‘더 넥센 유니버시티’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개방해 임직원과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마련,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넥센타이어의 의지를 담았다.

한편 올해 37회를 맞이한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서울의 건축 문화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시상하는 서울시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총 133개 작품이 응모된 가운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NEWS

英 프리미어리그 시즌 개막,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 공식 후원 지속



넥센타이어가 8월 10일(현지 시간) 개막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2019/20 시즌에도 맨체스터 시티 FC(이하 맨시티)의 공식 후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부터 맨시티를 공식 후원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유니폼 소매에 기업 로고를 노출하는 방식의 슬리브 파트너십을 맨시티와 체결했다. 이로써 최근 2시즌 연속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는 3시즌 연속 넥센타이어 로고가 소매에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르게 된다. 넥센타이어는 맨시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축구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맨시티는 지난 프리미어리그 2018/19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포함해 영국 내 리그 4관왕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속해온 넥센타이어의 맨시티 후원이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례로 자리매김한 만큼 2019/20 시즌에도 또 한 번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 4월 체코에 위치한 유럽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맨시티뿐만 아니라 지역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후원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NEWS

獨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스폰서십 2021/22 시즌까지 연장



넥센타이어가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 구단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공식 후원을 2021/22 시즌까지 3년 연장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12년부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파트너십을 이어왔으며, 독일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구단과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식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구단 내 넥센타이어 스카이 박스에서 진행됐으며, 넥센타이어는 계약 연장에 따른 브랜딩 광고 효과를 통해 독일 및 유럽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 로고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구단 홈경기장 전광판, 보드뿐만 아니라 구단 잡지를 통해 노출된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구단 내 넥센타이어 전용 스카이 박스 사용까지 후원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를 유럽의 주요 딜러 초청 행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역을 일컫는 ‘DACH’ 지역 소비자들과의 접점 또한 늘려나갈 방침이다.

NEWS

포르쉐 출신 첫 외국인 임원 영입, 글로벌 R&D 역량 강화



넥센타이어가 창사 이래 첫 외국인 임원을 영입하며 R&D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넥센타이어는 前 포르쉐 타이어 개발 총괄 책임자를 지낸 마이클 하우프트(Michael Haupt)를 넥센중앙연구소 '프리미엄 OE' 부문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임명했다. 마이클 하우프트 BS(Business Sector)장은 '포드모터 컴퍼니'에서 쉐시 부품 담당 엔지니어를 거쳐, 1996년부터는 '포르쉐'의 쉐시 및 타이어 개발 분야 테스트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수석 엔지니어, 총괄 책임자 등을 역임하며 23년간 포르쉐에서 근무했다. 넥센 타이어는 최근 유럽 및 미국 R&D센터 신축·확장을 비롯해 지난 4월 서울 마곡지구에 넥센중앙연구소를 오픈하는 등 글로벌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마이클 하우프트 BS장의 영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타이어 제품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통해 프리미엄 카 메이커로의 공급 확대 및 차세대 제품 개발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미국, 중국 등 글로벌 R&D 조직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R&D 역량 선진화를 이루어나갈 방침이다.

NEWS

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에서 '2019 서울 서바이벌 3쿠션 마스터즈' 대회 열려



넥센타이어의 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에서 '2019 서울 서바이벌 3쿠션 마스터즈 대회' 본선 경기가 열렸다. 코쥔인터내셔널이 주관하고 세계당구연맹(UMB)과 대한당구연맹(KBF)이 공동 주최, 서울시가 후원하는 '서울 서바이벌 3쿠션 마스터즈 대회'는 세계 랭킹 상위 20명을 포함한 1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지난해 9월 첫 대회를 시작으로 6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9월 16일부터 2일간 서울 역삼동 '엠블당구클럽'에서 예선 경기를 치르며, 18일 개막식을 비롯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본선경기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에서 개최했다. 2019 LG U+ 3쿠션 마스터즈 우승을 차지한 조명우(실크로드스인앰티)와 디펜딩 챔피언 에디 맥스(벨기에), 세계 랭킹 1위 딕 야스퍼스(네덜란드)를 비롯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하며, 총 상금은 약 3억 2000만 원이다. 지상 1층 로비부터 3층까지 건물을 개방하여 임직원과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공공 개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로비에 설치된 가로 30m, 세로 7m의 대형 미디어 월을 활용한 현장 경기 중계도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전 경기 무료 입장으로 진행됐으며, MBC 스포츠플러스,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및 인터넷 당구 전문 방송 코쥔코리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㉞

참여해주세요

- ❶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❷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 ❸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독자 당첨자

임정호 (오직넥센 분)
문재웅
이준임
구근형



2019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 부문 10년 연속 1위

NEXEN 넥센타이어

타이어 렌탈 서비스 이용해보셨어요?

타이어 언제 교체하세요?
엔진오일은 언제 교체하세요?

타이어가 마모 혹은 파손되어도 무상 교체해주고
엔진오일도 점검에서 교체까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합리적인 타이어 구매 제안 '타이어 렌탈'
고객님께 딱 맞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자유 렌탈 고객님의 마음대로 렌탈 상품 설계 가능

문의전화 1855-0100

타이어렌탈



NEXT LEVEL
넥센타이어가 만든 신개념 렌탈서비스



NEXEN
NEXEN TIRE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MOVE
BRILLIANTLY



NEXEN NEXEN TIRE